

교회소식

1. 오늘 2부 예배후 정기당회 모입니다.
2.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기도온 찬양대입니다.(연습2시,소망관)
3. 연합여전도회 주관으로 4월1일(화) 교회대청소를 합니다.
각 여전도회 회원께서는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바랍니다.
4. 4월 2일 수요일부터 수요일기도회 시간이 오후 7시에서 7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5. 4월13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및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은 4월4일까지 신청)
6. 4월14일(월)~20일(주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7.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신청자 문답교육이 4월 5일과 12일(토)에 있습니다.
8.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no1shinil.org
9. 신일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 오카리나지도자반, 바이올린, 플룻, 첼로 문의 : 윤현덕집사(010-7182-2978)

※교인동정

- 담임목사님께서 4월 1일(화) 눈수술로 한 주간 충대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생일 축하합니다 : 김명화, 정주희, 조진숙, 정연주, 김덕연, 최철홍, 김홍실
- 식사대접 : 엄길용, 엄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신을 감사드립니다.
- 정기훈 전도사께서 2014년도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결혼 : 양희진 -일시 : 4월 5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거제도 해피니스 웨딩홀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1남전도회	여17, 18목장	8 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4월 행사

- 6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정기제직회
- 13일 : 각 기관 월례회, 고난주간(성례식, 특별새벽기도회)
- 20일 : 부활주일(부활절칸타타), 실버 현신예배
- 21일 : 충청노회
- 27일 : 정기당회

◆ 4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4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곽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화	소속기관
	정동인			경남 거창군 가조제일교회	010-4934-3144	청년말투스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23장(구23장)
새261장(구19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기 도 1부/남동균 장로
2부/김명권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로마서 8:35~39 (신 P250)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우리는 확신 합니다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546장(구399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양문주 장로
2부 / 원용국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김 금 분 전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윤성욱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시편 40:1~5(구 P831)

찬 양 기도온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주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찬 양 ... 새295장(구417장) ·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이육영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정 기 훈 강도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488장(구539장) ... 다같이

기 도 김숙현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6:19~21(신 P8)

말씀선포 설교자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목장찬양 여 17, 18 목장

축 도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 1, 2 목장

✚ 다음주 기도 / 엄임순 집사

Since. 1978

No 13. 2014. 3. 30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욱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태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총청지역 S.F.C, 간사/이성은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 강혜성(김성원), 김경탁(김나경), 김영민(함현숙), 노시래(구남량), 박상임,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박혜진, 박희난, 안재경(정은숙),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유진화, 윤선옥(엄순자), 이성중(신선화), 이승호(성월웅), 이주신(곽지혜), 정인택(이정숙),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련), 무명 1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금보, 김명권(정영자), 김연태, 김재홍(한영자), 김제국(한영실), 김중남, 김준열(신윤경), 김진온(김남주), 마주성(김선영), 박상임, 박석문(정민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혜진, 성형건(윤송희), 소재학(김미하), 신동영(강경숙),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웅국(김복국), 윤선옥(엄순자), 이규홍(이진영), 이도하, 이성중(신선화), 이승호(성월웅), 이은정, 이인호(정지혜),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재만,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련), 채재규, 최사무엘(서남지)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 김영민(함현숙), 김영필(남보하), 노시래(구남량), 박근용(최윤자), 박혜진, 양문주(권유순), 윤성국(김신혜), 이도하, 이성중(신선화), 이승호(성월웅), 조성철(이해련), 최영준(한은정)

✦ 일천번제헌금

강희성, 김건국(성국/도하), 박유연,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윤),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민희), 장은숙(소연/진형/진성), 무명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강현선(임희자), 노시래(구남량), 이성중(신선화), 이규홍(이진영), 이승호(성월웅), 이규홍(이진영), 이승호(성월웅)

✦ 장학헌금

✦ 꽃꽂이헌금

목장현황

2014. 3. 17~3. 23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 초원	1 김중남	교 회	3	20,000	30	교 회	03 초원	5 김채욱	교 회	2	6,000	5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2	13,000	15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4,000	30	교 회
남2 초원	3 박근용	교 회	1			교 회	04 초원	7 광복님	교 회	3	13,000	23	교 회
	4 김명권	교 회	1	5,000	10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3,000	70	교 회
남3 초원	5 남동근	교 회	1	5,000	51	교 회	05 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1,000	6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2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5	12,000	12	교 회
남4 초원	7 오승엽	교 회	1	5,000	10	교 회	06 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125	교 회
	8 박순국	교 회	2	5,000	13	교 회		12 김복국	교 회	3	10,000	85	교 회
남5 초원	9 조성철	교 회	1		6	교 회	07 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5,000	2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	5,000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4	25,000	30	교 회
02 초원 (실버)	1 김명자	교 회	4	18,000	140	교 회	08 초원	15 신윤경	교 회	2	6,000	21	교 회
	2 김명숙	교 회	3	13,000	78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6	교 회
02 초원 (실버)	3 권월성	교 회	3	11,000	130	교 회	09 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5,000	5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1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3	3,000	35	교 회

금주의 말씀

우리는 확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본문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 하였습니다. “누가”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무엇이”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일곱 가지 단어, 곧 환난에서 칼까지는 “누가” 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무엇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행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무엇” 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자키지 못하여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곧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실을 3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 36 절에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시련들이 일곱 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다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십니다

본문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일” 시련은 일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죄가 있어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순교하는 자라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언제라도 죽음이 닥칠 수 있는 극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극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련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서11:36~37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에도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시련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버렸으며, 또한 그 결과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 어떠한 시련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본문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아 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기에, 어떤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더욱 힘 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38-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바라노니” 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도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실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 체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열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생명입니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후5:8 말씀처럼, 사망은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셋째와 넷째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역시 서로 짝을 이룹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을 일컫 습니다. 선한 천사들이든 악한 권세자들이든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도 짝입니다. 현재 일과 장래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의 일에도, 또한 장래의 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일곱째, 능력이입니다. 이는 짝을 이루지 않고 단독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한 천사들과 권세자들의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덟째와 아홉째는 높음과 깊음입니다. 다시금 짝으로 나타납니다. 시편139:8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낮은 스올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십니다. 마지막 열째,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을 총합하지 않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호복음10:29 말씀과 같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한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또한 이 모든 것을 합친 만물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 끝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